

천정배 “호남도 대권주자 내야”...정치적 무장투쟁론 제기

국회 기자 간담회

4·29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정치적 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차기 대선에 도전할 호남 대권 주자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한 ‘정치적 무장 투쟁론’을 제기, 주목받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 과감한 도전 호남 안된다 인식 깨뜨려야 새정치 복당 있을수 없는 일 文대표 만나 덕담만 나눠

호남은 안 된다 인식과 한계를 깨뜨리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천 의원은 “내가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며 “호남 인사들 가운데 대권 주자를 만들어 내겠다”며 이젠 “보궐선거에서 공약으로도 내세운 바 있다”고 말했다.

호남 정치와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 천 의원은 “호남은 정권 창출이 우선 순위인데 반해, 친노 패권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집권이 최우선 순위”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친노 패권주의로 인해 지금까지 야권의 패배가 이어져 온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특히, “진보 진영에서까지 호남의 정치 혁신 움직임에 대해 지역주의로 낙인찍고 분열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며 분개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인공과 정치적 구조 등을 들어 호남 출신은 대권 주자로 어렵다는 인식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호남 고립화 전략이 작용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대권에 도전한다고 해서 당장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된다거나 대선에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과감한 도전은



세월호 참사 현장 진도서 해상재난 대응 훈련

19일 오후 진도군 군내면 쉬미항 인근 해역에서 진행된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여객선 화재 상황을 가정한 민간 어선이 여객선에 접근, 탑승객을 구조하고 있다. /진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연합의 내분 사태 등을 주시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지만 너무 이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임동욱기자 tuim@

6번째 총리 후보자는 법조계 출신?

朴대통령 후임 검증 마무리...금주 중 발표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여론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새 총리 후보군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무리하고 박 대통령의 마지막 결심만 남겨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총리 인선 발표는 금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달 중순에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총리 인선을 미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후임 총리 발표가 조만간 또는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후보자 지명과 발표 시점은 대통령이 정할 사안이지만, 결코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법조계 인사 가운데 새 총리 후보를 지명할 것이

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성완중 리스트’ 파문 이후 고강도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온데다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퇴한 만큼 정치개혁 과제를 구현할 수 있는 법조계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명박정부 시절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린 김황식 전 총리와 같은 모델을 바라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당시 대법관 출신의 김 전 총리는 감사원장을 맡고 있다가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자 ‘대타’로 후보에 올랐다.

현재까지 거론된 법조계 출신 후보군은 이명재 대통령 민정특보와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조무제 전 대법관, 목

영준 전 헌법재판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다. 또한, 현직 각료 중에선 황찬현 감사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후보군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 인사 가운데 이명재 특보와 조무제 전 대법관 등 일부 인사는 본인이나 거둬 고사하고 있는데다 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경우 여성 대통령에 여성 총리라는 구도 때문에 총리 인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론 안팎에서는 법조계 출신 인사 발탁설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황우여 사회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인 인사의 발탁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다만, 이들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점은 총리 인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가람혁신도시 입주기관 올 지역출신 짝꿍 채용

올 246명...전국의 12.4%

전남도 “가산점 확대 20% 돼야”

빛가람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이 올해 광주·전남 출신 246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19일 전남도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빛가람혁신도시 12개 입주기관은 올해 정규직 214명과 비정규직 32명 등을 뽑기로 했다.

이 같은 지역 출신 채용 규모는 전국 채용 규모(정규직 1842명·비정규직 137명 총 1979명)의 12.4%를 차지한다.

지난해에는 13개 기관이 전체 채용 규모 1765명 중 11.2%인 198명(정규직 165명·비정규직 33명)을 지역 출신으로 채용했다. 기관별 올해 채용 규모는 한전 85명(정규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5명(정규직 7명·비정규직 8명), 한국인터넷진흥원

10명(정규직 6명·비정규직 4명), 한국농어촌공사 19명(정규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명(정규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명(정규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명(정규직) 등이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 5명(정규직), 농림수산물기술기술평가원 2명(정규직), 한전KDN 38명(정규직 18명·비정규직 20명), 한전KPS 61명(정규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명(정규직) 등이다.

이들 기관의 올해 지역출신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정규직은 49명 증가한 것이고 비정규직은 1명 감소한 것이다.

전남도는 민선 6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 빛가람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이 전체 채용 규모의 20%를 지역출신으로 뽑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이 지역 출신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을 확대

■ 빛가람혁신도시 기관별 광주·전남출신 채용인원

| | |
|--------------|-----|
| 한전 | 85명 |
| 한전KPS | 61명 |
| 한전KDN | 38명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15명 |
| 한국농어촌공사 | 19명 |
| 한국인터넷진흥원 | 10명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6명 |
| 한국콘텐츠진흥원 | 5명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5명 |
| 농림수산물기술기술평가원 | 2명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1명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명 |

하고 입주기관들과 지역대학이 인력양성 사업을 하도록 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인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인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인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부작용: 수술 초기 아간 빛반점, 노안시력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의뢰 제 140611-중-59153호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아이소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